



예거 르쿨트르는 THE SOUND MAKER 를 기념하여

저명한 스위스 아티스트 지문(Zimoun)과 협업한 작품을 공개합니다

그랑 메종은 워치메이킹 사운드의 예술을 예찬하는 The Sound Maker 의 하이라이트로, ‘소리 조각품’의 설치 작품을 공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스위스 모던 아티스트인 지문(Zimoun)에게 의뢰한 새로운 예술 작품은 올가을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 세계적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작품 의뢰를 통해 그랑 메종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계 제작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랑 메종은 The Sound Maker 테마에 따라, 소리의 본질을 기리고 시험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지문은 단순한 원자재와 용도가 변경된 산업 부품을 사용하여 조각, 공간,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을 재정의하며 다양하고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향과 움직임의 태피스트리를 창조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적 요소로서의 소리에 관심이 있고, 또한 어떻게든 방 안에 머물며 상호작용하는 소리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간적 경험과 소리, 물질, 공간, 그리고 지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입체적인 음향 구조로 작업합니다.”

지문은 역학, 행동성, 공명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가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식과 분명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지문과의 협업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지문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와 마찬가지로, 그는 원자재를 정밀하게 변형합니다. 금속에 대한 그의 전문성과 창의성은 기술과 아름다움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장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차임 시계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장인과 같이 지문은 단순함과 다양성, 재치와 우아함을 결합한 세련되고 시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각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바로 이해하는 데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복잡한 전체 시스템은 이를 상세히 분석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The Sound Maker’ 설치 작품

1944 prepared dc-motors, mdf panels 72 x 72 cm, metal discs Ø 8cm, 2020

자유로운 해석을 위해, 지문은 사용된 소재(관람객이 보는 요소)를 설명하는 매우 기술적인 제목을 작품명으로 짓습니다. 이 작품은 소형 DC 모터와 얇은 와이어, MDF 패널, 약 2,000 개의 매우 얇은 금속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크들은 음원 역할을 위해 예거 르쿨트르에서 얻은 시계 제작 부품입니다. 와이어로 모터에 연결된 디스크는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MDF 패널에서 회전합니다. 이러한 마찰은 매우 복잡한 구조의 소리를 생성하고 움직임은 반짝거리는 표면을 만들어냅니다.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금속 디스크를 고정하는 모든 와이어를 손으로 구부렸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금속 디스크는 각기 다른 각도와 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이는 작품의 시각 및 청각적 속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소리는 매우 복잡해지며 미세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강물처럼 다시는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죠. 시각적으로도 유사하게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수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반짝임이 나타납니다.”

관람객의 마음 속에서는 다양하고 특정 기억을 떠올리는 음향과 움직임의 태피스트리가 자연 현상(자연의 소리 및 수면의 햇빛 반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자연스러운 음악적 파노라마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와 주변 환경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문 소개

지문(1977 년생)은 '소리 조각품'이라는 소리 및 설치 미술 작품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에서 기계적인 리듬과 흐름을 탐구하는 그의 정서적이고 매력적인 설치 작품은 평범한 원자재와 산업 물질들을 결합하여, 모더니즘의 질서 정연한 패턴과 혼란스러운 삶의 힘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합니다. 수많은 레지던스와 지원금으로 인정받은 것 외에도, 지문의 작품은 칠레 산티아고의 MAC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MAC)과 서울 백남준 아트 센터, 대만 관두 미술관(Kuandu Museum Taipei), 마드리드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Art Museum Reina Sofia Madrid), 플로리다 링글링 미술관(Ringling Museum of Art Florida), 뭄바이 시립 미술관(Mumbai City Museum), 베이징 국립 박물관(National Art Museum Beijing), 루가노 LAC 미술관(LAC Museum Lugano), 서울 시립 미술관, 상파울루 MIS 미술관(Museum MIS São Paulo), 우전 무신 미술관(Muxin Art Museum Wuzhen), 쿤스트할레 베른(Kunsthalle Bern), 타이페이 시립 미술관(Taipei Fine Arts Museum), 파리 상카트르(Centquatre Paris), 부산 현대 미술관, MBAL 파인 아트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베른 시립 미술관(Kunstmuseum Bern), 랑베르 아비뇽 컬렉션 미술관(Museum Collection Lambert Avignon) 등의 유명 국제 미술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스위스 베른에 거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Sound Maker 소개

2020 년 예거 르쿨트르는 150 년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레 드 주의 일상적인 자연의 소리와 차임 시계의 위대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The Sound Maker 에 찬사를 보냅니다. 1870 년, 매뉴팩처가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이후 150 년 동안 차임 시계는 간단한 알람부터 극도로 정교한 소네리와 리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하는 200 개의 칼리버를 통해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뉴팩처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음향의 품질과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많은 혁신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